

이안눌 「贈幽谷驛吏」의 연구

김 창 호 *

<目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III. 「贈幽谷驛吏」시에 나타난 |
| II. 「贈幽谷驛吏」창작의 배경 | 주제 및 구성의 특징 |
| | IV. 맺음말 |

<국문 초록>

본 논문은 李安訥의 시 「贈幽谷驛吏」와 관련한 前代의 문학 전통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 작품의 내용과 구성 방식을 분석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조선 전기에서 중기에 이르는 한시 창작 전통의 일면을 살피는 동시에,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시인인 이안눌 시의 주제적, 문체적 특성을 展望할 입지점을 마련하고자 했다. 贈幽谷驛吏는 이안눌의 시가 도달한 주제적, 미학적 차원의 최종적 수준을 해명하기에 적절한 작품은 아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는 그의 시 정신과 작품 내용상의 보편적 성향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事實記錄의 精神과 家門意識이라 할 수 있다. 여러 詩話나 詩選集은 穆陵盛世를 대표하는 시인으로서의 이안눌을 표지할 작품으로 주로 「四月十五日」, 「聞歌」 등을 거론해왔다. 그리고 그간의 연구 성과들도 이들 작품을 중심에 놓고 그의 문학적 성취를 가늠하려 했다. 최고 수준으로 논의되는 작품의 분석을 통해 해당 작가와 작품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 시대 다른 시인과 변별되는 주제적, 미학적 좌표점을 설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해당 작가의 가장 일반적인 작품이 무엇이

* 원광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 nihult@hanmail.net

고, 또 그 일반성을 보장할 작품의 속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한시사가 역사적 존재들의 삶과 정신을 포괄하는 정신사의 실질적인 영역을 擔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贈幽谷驛吏」는 이안눌 시의 보편적 성향을 해명할 주요 근거를 보여주는 한편, 그의 시가 當代 문학사에서 도달한 주제적, 미학적 성취를 가늠하게 할 기준점 역할을 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贈幽谷驛吏, 事實 記錄의 精神, 家門意識, 前代의 문학 전통, 시적 장치

I.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李安訥(1571-1637)의 시 「贈幽谷驛吏」의 창작 배경과 주제적 특성에 대한 검토를 목표로 한다. 그럼으로써 조선 전기에서 중기에 이르는 한시 창작 전통의 일면을 살피는 동시에,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시인인 이안눌 시의 주제적, 문체적 특성을 전망할 입지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간의 한시 연구는 한시 작품에 반영된 시인 의식, 또는 詩風 변화와 관련된 문제 등을 주로 다루어왔으며, 한시 자체의 미학적 성격이나 형식적 특성에 대한 접근들도 간간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한시 작품 중에는 창작, 소통, 향유와 관련한 공시적 맥락의 면에서, 또는 계승과 변용 등 통시적인 문학 전통의 맥락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들이 적지 않다. 특히 후자의 경우 한시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신사적 해명의 문제와도 맞닿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룰 「贈幽谷驛吏」¹⁾는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에 걸쳐 활

1) 「贈幽谷驛吏」는 『東岳集』 권8, p.125의 「贈幽谷驛吏方胤男」, 권11, p.195의 「贈幽谷驛吏方鐵同」 두 편의 시를 가리킨다.

동한 이안눌이 창작한 것이다. 이 작품은 前 時代에 있었던 實話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詩作의 전통을 이은 것으로 『東岳集』에 모두 두 편이 실려 있다. 이안눌은 1609년과 1614년 경상도 幽谷을 지나며 이 두 편의 시를 남기는데, 이러한 창작은 曾祖인 容齋 李荇(1478-1534)이 100여 년 전에 이곳을 지나며 「方潔吟」, 「幽谷驛吏方潔, 藏涵虛公文板者也. 僕曾有詩記其事, 今復過是驛, 聊成一律.」의 두 편을 남긴 사실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두 사람의 작품은 공통적으로 方潔이라는 士禍期 한 驛吏의 의로운 행동을 제재로 한 것이다. 특히 이안눌의 「贈幽谷驛吏」는 前代의 문학 창작을 의식한 것이면서, 동시에 그의 시 정신과 주제적 성격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안눌과 그의 시에 대해서는 체제와 「四月十五日」²⁾ 등 대표적인 작품을 다룬 것³⁾, 「萊山錄」所載 작품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한 것⁴⁾, 시 정신에 관한 것⁵⁾, 권필과의 대비적 고찰⁶⁾, 시학 및 문예적 성격 전반에 대해 검토한 것⁷⁾, 邊塞詩의 성격⁸⁾과 韓愈·杜甫 詩 학습의 의미에 대해 검토한 것⁹⁾, 西人系 시인의 한 명으로서 주목한 논의¹⁰⁾ 등이 있다. 그러나 특정 작품을 문학 전통의 면에서 살피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안눌 시를 貫流하는 시 정신과 주제적 성격을 전망하고자 한 논의

2) 李安訥, 『東岳集』 卷8, p.100.

3) 李丙疇, 『東慶語文論集』 제1집, 동국대, 1984.

4) 權賢珠, 「東岳 李安訥의 詩 研究」, 부산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5) 이종목, 「李安訥의 현실주의적 詩精神과 紀實의 시세계」,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6) 정민, 「權輶과 李安訥 對比的 考察」, 『韓國學論集』 제10집, 漢陽大 韓國學研究所, 1986.

7) 김상일, 『東岳 李安訥 詩研究』, 보고사, 2000.

8) 구본현, 「이안눌 邊塞詩 연구」, 『한국한시연구』 12권, 한국한시학회, 2004.

9) 구본현, 「이안눌의 韓愈, 杜甫 시 학습의 실상과 의미」, 『한문고전연구』 14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07.

10) 김창호, 「朝鮮中期 西人系 詩人の 詩世界 研究」, 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논의를 전개하는데 있어, 먼저 「贈幽谷驛吏」의 창작 배경과 관련된 洪貴達의 「幽谷館重修記」¹¹⁾의 저술 경위와 내용을 간단히 살피고, 이어 方潔 일화를 다룬 이행 시의 형상화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이어 「贈幽谷驛吏」의 주제와 구성 방식의 분석을 통해, 이안눌 시의 시 정신과 문체적 성격 일반을 전망할 주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贈幽谷驛吏」 창작의 배경

「贈幽谷驛吏」시의 검토에 앞서 먼저 홍귀달이 지었던 「幽谷館重修記」의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幽谷館重修記」는 홍귀달의 문집인 『허백정집』에 실려 있는데, 이를 통해 창작 경위와 그 내용에 대해 알 수 있다.

영남의 육십여 주는 땅이 넓고 인물이 많은데 그곳으로 가는 수레와 말은 모두 幽谷 길을 거쳐야 한다. 서울로 가든 서울에서 남쪽으로 오든 또한 이곳을 지나야 비로소 여러 갈래 길로 흩어져 각자 자기 갈 곳으로 간다. 사람에게 비유하자면 이 역은 영남의 목구멍쯤이 될 것이다. 목구멍에 병이 나면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면 살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아아! 이것이 禹侯가 傳舍의 수리를 서두르면서 반드시 幽谷에서 먼저 시작한 이유다.

(中略) 홍치 2년[1489]에 禹侯 雄이 나와 이 길의 察訪이 되었는데, 파리하고 잔폐한 것들을 소생시키는데 빠뜨리는 생각이 없었으며, 빠른 발을 가진 역졸과 빨리 달리는 역말을 두었다. 驛路가 이미 충실해지자 여러 사람들과 의논하여 말하기를 “아무 아무 역의 관사가 퇴락하여 사신의 명을 띤 분을 엄숙하게 맞고 나그네들을 편안하게 할 수 없다. 나보다 앞서 계셨던 분들이야 이미 어떻게 할 수 없고 나보다 뒤에 오는 사람들은 또 기약할 수 없으니, 이것은 나에게 달려있도다. 내가 重修하리라. 그러나 유곡은 내가 있는 本驛이며 큰손님들이 처음 이르는 땅이며 남과 북으로 오갈 때 지나게 되는 요충지이니 반드시 이곳

11) 洪貴達, 『虛白亭文集』 卷2, p.47.

부터 먼저 해야 한다.”라고 하자, 여러 사람들이 “좋습니다.”라고 했다.

(中略) 하루는 侯가 내 글을 받아 記文으로 삼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다. 내가 말했다. “이 郵亭이 있는 이래로, 이 察訪과 驛丞을 둔 지 무릇 몇 년이며 또 몇 사람이었으랴. 그런데 그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새롭게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따라 아전과 백성에게 해독만 끼쳤다. (中略) 비록 그리 하나 監事가 잘잘못에 대해 성적을 매기고 이조에서 인물을 헤아릴 때에, 우후의 어질고 능력 있는 것을 이에 아뢰게 될 것이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오? 그래도 그만두지 말라하면 한 가지가 있으니, 천하의 일은 이루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고, 이루고 난 뒤에 쉽게 허물어지고 허물어져도 고치지 않는 것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 예로부터 어질고 지혜로운 선비가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여 막힌 것을 일으키고 없어진 것을 보충할 때, 처음부터 그것을 오래 보존하고 이어가기를 바라지 않는 적이 없었지만 항상 잘 지켜내지 못하고 황폐한데도 다스려지지 않는 데까지 이르니 매우 탄식할 만하다. 사람마다 모두 처음 것던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천하에 어찌 무너지고 망가지는 일이 생기겠는가? 이것은 써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이에 써서 우후에 이어 오는 이에게 남겨 경계로 삼도록 하겠다.”¹²⁾

이 글은 홍귀달이 그의 나이 54세이던 1491년에 지은 것이다. 유곡은

12) 洪貴達, 『虛白亭文集』 卷2, 「幽谷館重修記」, “嶺之南六十餘州, 幅員之廣, 人物之衆, 而其輪蹄咸束於幽谷之路. 得達于京師, 自京師而南者, 亦過此, 始岐而散行, 各之其所之. 比於人, 是驛也, 其嶺南之咽喉乎. 咽喉病則食飲不得通, 食飲不得通則其生也可冀乎. 噫, 此禹侯所以急傳舍之修, 而必先於幽谷者乎. …… 弘治二年, 禹侯雄, 出而爲察訪是路, 凡所以蘇復羸殘者, 靡有遺策, 步有疾足, 騎有逸蹄. 驛路之旣實, 則謀於衆曰, 某某驛館舍頽毀, 非所以肅使命而安賓旅也. 前乎吾者, 旣不可追, 後乎吾者, 又不可期, 其在吾乎. 吾其重修之矣. 然幽谷是吾本驛也, 是大賓始至之地也, 是南北往還之要衝也, 盍先此乎. 衆曰, 諾. …… 一日, 侯與書求文以爲記. 余曰, 自有此郵亭, 卽有此察訪與丞, 凡幾年更幾員. 而未有能新之者, 非惟不能新之, 又從而毒其吏民. …… 雖然, 有監司以殿最幽明, 有吏部以權衡人物, 禹侯之賢能, 當於是乎白矣, 吾何言. 無已則有一焉, 天下之事, 不患於不成, 而患於成而易壞, 壞而不修. 自古賢智之士, 爲國爲民, 興滯補廢, 未始不欲其久而繼之者, 常不能善守, 至於蕪廢不治, 深可嘆也. 使人人皆有作者之心, 則天下安有毀敗事乎. 是不可以不書, 乃書以遺夫繼禹侯者警焉.”

慶尙道 聞慶縣에 있는 곳으로 驛院이 있었다. 서두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곡은 嶺南에서 서울로 가거나 서울에서 영남으로 갈 때 거쳐야 하는 길목이다. 따라서 다른 곳보다 高官들을 맞는 일이 잦았고, 또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다. 그런데 成宗 재위 후반부인 당시에 驛務가 미비하고 관사도 퇴락해 있었다. 이 무렵 禹雄이라는 이가 이곳의 찰방이 되면서 驛路를 충실하게 하고 객관을 重修한 뒤에 홍귀달에게 서신을 보내 記文을 부탁한다. 홍귀달은 인근 咸昌 출신으로 40년 동안 한양을 오가며 보았던 퇴락한 傳舍의 모습을 떠올리며 기문을 쓰게 된다.

유곡의 지역적 특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 글은, 중반 부분에 이르러 前任者들이 적지 않았지만 傳舍를 새롭게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아전과 백성에게 해를 끼쳤음을 적고 있다. 이어 우옹의 업적을 칭찬하고는 후반부를 통해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즉 “天下의 일은 이루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고, 이루고 난 뒤에 쉽게 허물어지고 허물어져도 고치지 않는 것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전사를 重修한 것 못지않게 잘 지켜나가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 기문은 1491년에 쓰여진 이래 甲子土禍가 일어날 때까지 유곡관에 걸려있었다. 그런데 慶源에 유배되어 있던 홍귀달이 漢陽으로 이송되다가 端川에서 죽음을 당할 무렵, 조정에서 기문을 철거하라는 명을 내린다. 이때에 유곡의 驛吏 중에 方潔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이안눌이 추정하듯 홍귀달이 한양과 함창을 오갈 때 모신 경험이 있는 인물인 듯하다. 방결은 철거의 명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자 걸려있던 기문을 떼어 잘 보관해 둔다. 그리고 이후 中宗반정이 일어나고 홍귀달이 伸冤되자 꺼내어 옛날처럼 다시 걸어 둔다.

한편 1510년 용재 이행은 남쪽의 金烏山·伽倻山·海印寺·紅流洞 등을 유람하게 된다. 이때 유곡역을 지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기문을 보관했던 방결의 이야기를 들은 듯하다. 현전하는 『용재집』에는 유람 중에 쓴 작품들이 「南遊錄」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는데, 여기에 방결의 일을 제재로 한 작품이 두 수 실려 있다. 한 편은 조령을 넘어 嶺南에

발을 디딜 때에 쓴 것이고, 다른 한 편은 다시 조령을 넘어 한양에 돌아올 때 쓴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작품은 방결의 일을 처음 듣고 쓴 것이다.

「方潔吟」

庶流未易輕	庶流를 하찮게 보아서는 안되니
潔也尤瑰奇	潔은 더욱 보배로운 이
甲子禍滔天	갑자년의禍, 하늘까지 가득할 때
人命如奕棋	사람의 목숨 바둑알과도 같았지
哀哉涵虛公	슬프도다 涵虛公이여
棄身荒塞陲	황량한 변새로 귀양을 가셨지
焚如及題詠	火焰이 題詠에 까지 이르니
令甚風火馳	명령의 심함 바람 앞의 불길 같았지
幽谷板上記	幽谷驛 板上的 記文이여
巨筆宏其詞	대가의 솜씨에 그 말씀도 대단했네
潔也夜抱歸	결이 밤중에 품에 안고 가서는
十襲終不疑	푹푹 싸서 감추자 끝내 의심하지 않았네
是豈有所要	이 일 어찌 바라는 바 있었으랴
中心難自欺	진심은 스스로 속이기 어렵다네
漢運既反正	漢나라의 運 이미 올바름에 돌아가고
趙璧亦無虧	趙나라의 구슬도 상치나지 않았네
我今過古驛	내 지금 옛 驛을 지나노라니
覽之雙涕垂	바라보자 두 줄기 눈물 흘러 내리네
嗚呼若潔者	아아! 潔과 같은 이여
可爲士林師	士林의 스승이 될 만하도다 ¹³⁾

南行이 있기 전의 여러 해는 이행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격변의 시기였다. 특히 燕山君 10년(1504)에서 연산군 12년(1506) 무렵의 기간은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했던 시기로 이 무렵 그는 많은 고초를 겪었다. 연산군 10년에는 廢妃 尹氏의 復位를 극력 반대하다가 忠州에 유배되었고, 다시 咸安에 유배되기도 했다. 그리고 연산군 12년에는 거제도에 圍籬安

13) 李荇, 『容齋先生集』 卷7, p.471.

置되었으며 가을에 다시 收繫되어 杖刑을 받는 등 危難에 처해 있다가 9월, 中宗이 즉위하면서 사면을 받게 된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목숨이 바둑알과도 같았던 때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이행은 홍문관 부응교, 성균관사예 등을 맡으며 조정 생활에 복귀하지만 사회의 체험은 뇌리 속에 잊혀지지 않았던 듯하다. 이행이 방결을 주목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가치의 혼란을 겪고 또 목숨이 위태로웠던 상황에서 의로운 결단에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사회의 외중에 보았던 많은 人士들의 모습과 뚜렷한 대비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람을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올 때의 작품은 이러한 정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幽谷驛吏方潔, 藏涵虛公文板者也. 僕曾有詩記其事, 今復過是驛, 聊成一律。」

驛吏有方潔	驛吏 중에 방결이 있거니
吾詩曾一云	내가 시를 지어 한 번 읊었네
斯人今幸見	이러한 사람 지금에 다행히 보았거니
此事古難聞	이러한 일 옛날에도 듣기 어려웠다네
名豈榮枯變	명성이 어찌 영고성쇠에 따라 바뀌랴
心無貴賤分	마음은 귀천의 구분이 없다네
紛紛輕薄者	분분한 경박한 사람들
何物是浮雲	뜬 구름 같은 것이 무엇이던가 ¹⁴⁾

앞의 작품에서 이행은 방결의 일을 개괄하고 그에 대한 감개의 정을 표출하는 한편, 의로운 행동이 士林의 모범이 될 만함을 칭찬했었다. 이 작품에서는 그러한 행동의 변치 않는 의의를 서술하면서, 마지막 두 구를 통해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경박한 사람들과 대비시키고 있다. 경박한 이들에 대한 언급에 담긴 人情世態의 비판은, 곧 당대에 의리라는 가치의 고수가 현실적인 이익과 거리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反正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리에 대한 인식

14) 李荇, 『容齋先生集』 卷7, p.476.

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Ⅲ. 「贈幽谷驛吏」시에 나타난 주제 및 구성의 특징

이행이 유곡을 지나며 「방걸음」을 남긴지 약 100년 뒤에 증손자인 이안눌도 유곡을 지난다. 모두 두 차례로 파악되는데, 증조의 창작 전통을 이어 그도 방걸 관련 작품을 남긴다. 한 편은 1609년 병으로 東萊府使를 그만두고 돌아올 때 지은 것이고, 다른 한 편은 1614년 慶州府尹으로 재직할 때에 이곳을 지나며 지은 것이다. 1609년의 작품에서 이안눌은 방걸의 후손인 方胤男을 만난 기쁨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용재선생집』에 「方潔吟 이 있고 또 「方潔詩 가 있다. 그 序에 이르기를 “예전에 幽谷에 「文匡公記 가 있어 벽에 걸어 놓았는데 燕山朝 갑자사화 때 공이 화를 입자 그것을 철거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역시 방걸이 그것을 조심스레 숨겨두었다가 반정이 일어나자 다시 내어 걸어놓았으니 당시 사대부의 마음 씀이 潔만한 이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이 시를 읽고 그 사람을 어질게 여기고 그 의로움을 높이 평가한 적이 있다. 지금 유곡을 지나며 물어보니 胤男이 潔의 후손이었다. 기뻐하며 함께 이야기하고 감회를 적어 이곳에 사는 이들과 이곳을 지나는 이들에게 준다. 윤남의 아버지는 九이고 구의 아버지는 平, 평의 아버지는 一이고, 일의 아버지는 潔이니 곁은 바로 윤남의 고조다.¹⁵⁾

이것은 「贈幽谷驛吏方胤男」¹⁶⁾시의 앞부분에 소개된 내용이다. 당시 동래부사를 그만두고 한양으로 돌아오던 이안눌은 鳥嶺을 넘기에 앞서 유곡역을 지나게 된다. 이 때 이 지역이 증조 이행이 창작했던 「방걸음」

15) 李安訥, 『東岳集』 卷8, 「贈幽谷驛吏方胤男」, “容齋先生集, 有方潔吟, 又有方潔詩. 敘曰, 幽谷舊有文匡公記, 釘于壁, 燕山甲子, 公被害, 官命撤去. 驛吏方潔藏之謹, 及反正, 復出釘之, 當時士大夫用心, 有能如潔者乎. 余嘗讀此, 賢其人而高其義, 今過幽谷問之, 則胤男, 潔之後也. 喜與之語, 書以志感, 以貽諸家於斯路於斯者也. 胤男父九, 九父平, 平父一, 一父潔, 潔乃胤男高祖也.”

16) 李安訥, 『東岳集』 卷8, p.125.

과 관련된 곳을 想起하며, 방걸의 후손이 살고 있는지를 물어본다. 후손이 살고 있다는 말을 들은 그는 후손 윤남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그리고는 유곡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유곡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취지의 시를 남긴다.

容祖過幽谷	용재공 할아버지 유곡을 지나시며
再題方潔詩	두 번이나 방걸에 관한 시를 지으셨네
滔天甲子禍	하늘까지 치솟은 갑자년의 화
掃地文匡辭	사라질 뻔 했던 문광공의 글
驛吏昔如許	그 옛날 역리도 이와 같았거니
士林今有誰	지금 사림에는 누가 있는가
百年逢末裔	백년 뒤의 후손을 만나
相對一吁嘻	마주하며 한 번 탄식을 하네 ¹⁷⁾

증조 이행과 방걸과의 인연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되는 이 시는 이행의 시대로부터 100년이 지난 當代에 대한 탄식으로 종결되고 있다. 내용의 핵심은 옛날에는 일개 驛吏조차도 의로움을 행위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에 비해, 지금의 사림 중에는 이런 사람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시의 창작 시기가 大北 세력과 柳希奮 등 외척 세력이 정국을 좌지우지 하던 光海君 初라는 점에서, 역리의 의로운 행동이 새삼 새롭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마지막 부분의 ‘탄식’은 자신의 시대에 대한 인식을 배경에 둔 듯한 인상을 준다. 「방걸음」에서 이행이 언급했던 ‘두 줄기 눈물’이 士禍의 혹독한 체험에서 나온 것이었다면, 여기에서의 탄식은 자신의 시대에 대한 안타까움과 한스러움이 무르녹아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서의 실마리는 광해군 중엽으로 가면서 정국이 점점 경색되고, 가까운 벗 권필이 죽음을 당한지 얼마 안 된 시기인 1614년의 작품에서 다른 면모로 나타난다.

17) 李安訥, 『東岳集』 卷8, 「贈幽谷驛吏方胤男」.

爾是方吏後	그대는 方吏의 후에
吾爲容相孫	나는 容相의 후손
初逢似曾識	처음 만났지만 알던 사이 같거니
茲事共誰論	이 일을 누와 함께 논하라
義氣一夷險	義氣란 험한 때나 평탄한 때나 한결같은 것
世情多覆翻	세상의 인심은 바뀌는 일도 많네
千秋幽谷驛	천년토록 幽谷의驛에
名與兩篇存	아름다운 名譽, 두 편의 작품과 길이 남으리라 ¹⁸⁾

방윤남을 만나고 5년이 지난 뒤에 이안눌은 다시 유곡을 찾는다. 이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方吏의 후예’는 方鐵同이다. 1609년에 만났던 방윤남은 1611년 여름에 세상을 떠나고, 방결의 후손으로는 유일하게 6세손인 방철동만이 남아있었다. 앞 작품이 시대에 대한 탄식의 어조가 강했다면 이 작품은 담담한 어조로 불변의 가치를 언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시인이 강조하는 것은 翻覆이 잦은 世情과 달리 평순한 때나 간헐한 때나 변함이 없는 義氣다. 반복무상한 광해군기의 정국을 바라보면서 그는 변함없는 가치, 곧 의로운 정신과 행위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방결의 일과 그러한 명예를 선양한 이행의 두 편 작품이야말로 오래도록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안눌 자신도 詩作을 통해 증조인 이행의 문학 정신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두 편의 작품은 詩話나 詩選集에서 이안눌의 대표작으로 언급되는 작품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작품은 4,000여수가 넘는 이안눌 시의 보편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핵심적인 속성을 담고 있다.

우선 거론할 수 있는 특징으로, 이 작품에는 事實 記錄의 精神이 잘 나타나 있다. 선행 연구들은 記事性¹⁹⁾, 紀實의 시정신²⁰⁾ 등의 이름으로

18) 李安訥, 『東岳集』 卷11, p.195, 「贈幽谷驛吏方鐵同」.

19) 김상일, 앞의 책, p.196.

20) 이종목, 앞의 책, p.340.

이 같은 특성에 주목해 왔다. 『동악집』 編制의 성격이나 작품 자체의 기록적 성향의 면에서 이 같은 면모는 여타 시인과 변별되는 중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안눌의 시가 이 같은 정신을 구현하는 데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詩的 裝置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장치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 題目, 并序, 注 등이다. 「贈幽谷驛吏方鐵同」시에서도 시인은 이러한 장치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경주부윤으로 있을 때에 지은 작품을 보기로 한다.

(前略) 기유년 가을에 동래부사를 그만두고 京城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오다가 이 역에 이르러 潔의 후손에 대해 묻고는 그 후손인 윤남을 만나 함께 옛 일을 이야기하고 떠났다. 지금 잠깐 들렀는데 윤남이 신해년 여름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 또 결의 후손을 찾아보았는데 다행이 철동을 만날 수 있었다. 대개 결의 아들이 하나인데 그 이름이 一이고, 一의 아들이 하나인데 卍이고, 卍의 아들이 넷인데 그 이름이 六, 七, 八, 九였다. 七, 八은 아들이 없고 九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윤남이다. 윤남은 아들이 없었고, 六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繼齡이었다. 계령은 아들이 셋인데, 그 이름이 豐積, 富積, 善積이었다. 富積과 善積은 아들이 없고 豐積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철동이었다. 철동은 결의 육세손이다. 아아, 연산조 갑자년으로부터 지금 갑인년에 이르기까지 백 십년의 사이에 결의 후손이 육대에 걸쳐 내려왔는데, 다만 철동 한 명만 남아있다. 철동에게 물어보니 潔이 왜 潔인지를 이미 알지 못하는 데, 또 어떻게 우리 증조께서 그의 고결함을 고결하게 여겨 시로 지어 읊었음을 알 수 있었는가. 결이 결이 되는 이유와 그의 고결함을 고결하게 여겼던 이유를 철동의 代에 이르러서도 알지 못하는데, 더구나 철동의 후손이 어떻게 알겠으며, 철동도 알지 못하는데 더구나 철동만 못한 자가 어떻게 알겠는가. 내가 이로부터 이驛의 역리가 어리석어 결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결로부터 세대가 멀어지면 상고할 수 없을까 그욕이 두려웠다. 그러므로 이 역에 이를 때 마다 반드시 결의 후손을 구하고 그 一家를 물어 文字로 드러내어 이미 결의 후손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 증조의 후손으로 나보다 뒤에 이 길을 지나는 자에게 보여주어, 이 역의 하나의 故事로 남겨두고자 한다. 만력 사십 이년 갑인년 겨울 시월 초 오일 갑신에 德水 後人은 쓴다.²¹⁾

이것은 어떤 내용의 기록을 위한 산문이 아니라 「贈幽谷驛吏方鐵同」시 并序의 후반부다. 이안눌은 이 병서에서 1609년 방윤남을 만난 뒤로 다시 방철동을 만나게 된 경위, 그리고 방걸로부터 방철동까지 110년 사이의 家系를 소상히 적고 있다. 이어 이러한 기록과 시를 남기는 취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철동에게 물어보니 潔이 왜 潔인지를 이미 알지 못하는데, 또 어떻게 우리 증조께서 그의 고결함을 고결하게 여겨 시로 지어 읊었음을 알 수 있겠는가.”라는 내용을 볼 때, 6세손인 철동도 조상인 방걸의 일은 물론 그것을 시로 선양한 이행의 일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이안눌의 입장에서는 철동에게 조상인 결의 의로운 행동에 대해 분명하게 알려주고 또 철동의 후손들이 그러한 정신을 계승하게 하는 한편, 유곡을 지나게 될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조상인 이행의 일을 알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이 역의 하나의 故事로 남겨두고자 한다.”는 말 속에 이러한 의도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병서에 시 창작과 관련된 전후의 상황, 그 취지와 의의 등을 整然하게 적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안눌의 주된 관심은 시에 있었고 현재 남아있는 작품 역시 거의 대부분이 시다. 그는 시보다는 散文이 적합한 재제나 상황에서도 시를 위

21) 李安訥, 『東岳集』卷11, 「贈幽谷驛吏方鐵同」, “…… 己酉秋, 自萊山罷歸京城也. 行到是驛, 問潔後世, 得見胤男, 與之道其故而去. 今而來過, 胤男已於辛亥夏歿矣. 又求潔後, 幸得鐵同. 蓋潔子一曰一, 一子一曰平, 平子四, 曰六, 曰七, 曰八, 曰九. 七八, 無子, 九子一曰胤男. 胤男無子, 六子一, 曰繼齡. 繼齡子三, 曰豐積, 曰富積, 曰善積. 富積, 善積, 無子, 豐積子一, 曰鐵同. 鐵同於潔, 六世孫也. 噫, 自燕山甲子, 迄今甲寅, 百有十年之間, 潔之後傳于六世, 只有一鐵同在焉, 而問諸鐵同, 潔之爲潔, 既不能知之, 又惡能知我曾祖潔其潔而詠歌之也. 潔爲潔而潔其潔者, 至鐵同尙不能知, 況後於鐵同者乎. 在鐵同且不能知, 況非如鐵同者乎. 余竊恐自此而往, 是驛之吏矇然, 將不知有潔, 潔之有世茫焉, 亦無以考. 故每到是驛, 必求潔後, 詢厥系屬, 形諸文字, 既以示潔之後, 又以示我曾祖之後, 後於我而路於是者, 留爲是驛一故事也. 時萬曆四十有二年歲在甲寅冬十月初五日甲申, 德水後人書.”

주로 하면서 題目, 并書, 注 등 다양한 장치를 활용했다. 한 예로 洪陽을 떠나 동래부사로 부임하던 1607년 大興을 지나는데, 이 때 그곳의 縣監 尹有吉이 見思亭이라는 곳에 이안눌의 高祖 蓮軒公의 記板이 있음을 말하면서, 重修한 정자의 記文을 부탁한 일이 있다. 이때 그는 글솜씨가 졸렬하다는 이유로 사양하면서 대신 시를 지어주는데, 제목의 아래에 창작 정황과 來歷을 반영한 병서를 덧붙이고 있다.²²⁾ 특히 이안눌의 시에 있어서 병서는 설명이나 묘사 등 산문이 적합한 상황에서 그러한 역할을 대신하는 장치의 역할을 한다. 병서만 독립적으로 분리해도 거의 한편의 記文이나 다름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바로 위의 병서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위의 병서를 포함한 제목, 병서, 작품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구조는, 시의 事實 記錄的 精神을 중요시한 이안눌 시의 특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贈幽谷驛吏」를 통해 거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그의 시 전반에 관류하는 家門意識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안눌은 12세 때에 高祖인 李宜茂의 제사를 맡기 위해 재중부인 사헌부 감찰 泌의 후사로 출계했었다²³⁾. 이후 한때 停學를 당하기도 했지만, 戰亂이 끝날 무렵 ‘老親이 계시므로 自佚해서는 안된다는 친한 이들의 권계에 의해 환로에 나섬으로써²⁴⁾’ 가문의 일원으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게 된다. 그는 출사 이전 재야의 여러 벗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시대를 ‘하늘 황량하고 땅 늙어버려 봉황이 굶주린’ 타락의 시대로

22) 李安訥, 『東岳集』 卷21, p.410, 「大興東軒, 用板上故觀察使安公琛韻, “縣監 尹君有吉, 萬曆乙卯榜生員也. 莅任僅數月, 政平民安, 廡舍傾頽, 廡不修葺, 見思亭在於縣館東隅, 年久且圯, 亦改而新之, 役不以民, 其能官可知矣. 亭有高王父蓮軒先生記板, 至今釘于壁, 乃牧洪陽時, 爲縣宰張侯漢公作也. 尹君請余爲文, 以踵高王父遺蹟, 辭以拙不敢塞求, 聊短述自識. 余於萬曆戊申春, 發洪陽, 赴萊山, 路由是縣, 信宿以行, 故起聯云.”

23) 李安訥, 『東岳集』 續集 附錄, p.562, “年十二出後再從父司憲府監察諱泌, 皆爲主蓮軒祀也.”

24) 李安訥, 『東岳集』 續集 附錄, p.562, “所親多規以堂有老親, 不宜自佚, 仍復求舉.”

파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이러한 성향을 자주 드러내기보다는 주로 가문의 전통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효의 가치를 중시하는 내용²⁵⁾, 중국에 사신 갔을 때 母親을 염려하는 마음²⁶⁾ 등은 그러한 예라 할 수 있다.

(前略)

生爲此心依聖主 살아서 이런 마음 가지는 것 임금님 덕택이나
 死將何面見先公 죽어 무슨 얼굴로 祖上을 뵈 수 있을까.
 吾令辭舌終無怨 내 혀 깨물고 끝내 원망하지 않으리니
 作孽初非自上穹 禍를 만든 것은 애초에 하늘에 원인 있는 것 아니라네²⁷⁾

이 작품은 이괄의 난에 연루되었다는 죄목으로 유배되었을 때의 작품이다. 그는 이처럼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이유를 자신에게 돌리면서 죽어서도 조상을 뵈 면목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극단적인 고뇌의 상황에서도 가문의 일원이라는 의식을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용은 다르지만 위에서 검토한 「贈幽谷驛吏」도 이러한 의식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평소 이안눌은 가문의 문학 전통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으며 작품의 중간 중간에 世居地와 別墅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²⁸⁾ 이러한 점에서 증조 이행의 시 창작과 관련된 공간을 지나면서 전에 읽었던 시를 떠올리고 그러한 문학 전통을 잇는 것은, 일종의 사명감에 의한 것이

25) 李安訥, 『東岳集』 卷11, p.178, 「十一月二十三日, 宿四方村」, “…… 去亦非吾去, 駐亦非吾駐. 一爲慈母喜, 一爲慈母懼. 向來五日途, 十日行未至. 誰知使君身, 只係慈母意.”

26) 李安訥, 『東岳集』 卷2, p.25, 「六月初七日, 入遼東懷遠館, 紀行述懷. 近體三首, 團練使之歸, 寄示漢陽諸君子」 其二, “…… 西來不復東回首, 故國歸心恐益悲.”

27) 李安訥, 『東岳集』 卷16, p.264, 「用前韻贈人」.

28) 李安訥, 『東岳集』 卷9, p.139, 「雪後登山作」.; 卷11, p.183, 「兄山道中, 有懷廣津別業, 用每到花時不在家韻」.; 卷16, p.269, 「對菊花有感」과 같은 작품 등을 들 수 있다.

면서 한편으로는 크나큰 즐거움이었을 것이다. 여기에 “또 우리 증조의 후손으로 나보다 뒤에 이 길을 지나는 자에게 보여주겠다.”는 내용은, 자신 이후에도 가문의 문학전통이 면면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의 일 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贈幽谷驛吏」와 관련한 前代의 문학 전통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 작품 내용과 구성 방식을 분석하였다. 「贈幽谷驛吏」는 이안눌의 시가 도달한 주제적, 미학적 차원의 최종적 수준을 해명하기에 적절한 작품은 아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는 그의 시 정신과 작품 내용상의 보편적 성향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事實 記錄의 精神과 家門意識이라 할 수 있다. 여러 詩話나 詩選集은 穆陵盛世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서의 이안눌을 표지할 작품으로 주로 「四月十五日」, 「聞歌」 등을 거론해왔다. 그리고 그간의 연구 성과들도 이들 작품을 중심에 놓고 그의 문학적 성취를 가늠하려 했다. 최고 수준으로 논의되는 작품의 분석을 통해 해당 작가와 작품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 시대 다른 시인과 변별되는 주제적, 미학적 좌표점을 설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해당 작가의 가장 일반적인 작품이 무엇이고, 또 그 일반성을 보장할 작품의 속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한시사가 역사적 존재들의 삶과 정신을 포괄하는 정신사의 실질적인 영역을 擔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贈幽谷驛吏」는 이안눌 시의 보편적 성향을 해명할 주요 근거를 보여주는 한편, 그의 시가 當代 문학사에서 도달한 주제적, 미학적 성취를 가늠하게 할 기준점 역할을 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參考 文獻>

- 李安訥, 『東岳集』, 『韓國文集叢刊』 78, 民族文化推進黨.
- 李 荇, 『容齋集』, 『韓國文集叢刊』 20, 民族文化推進黨.
- 洪貴達, 『虛白亭集』, 『韓國文集叢刊』 14, 民族文化推進黨.
- 구본현, 「이안눌 邊塞詩 연구」, 『한국한시연구』 12권, 한국한시학회, 2004.
- , 「이안눌의 韓愈, 杜甫 시 학습의 실상과 의미」, 『한문고전연구』 14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07.
- 權賢珠, 「東岳 李安訥의 詩 研究」, 부산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김상일, 『東岳 李安訥 詩研究』, 보고서, 2000.
- 김창호, 『朝鮮中期 西人系 詩人の 詩世界 研究』, 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李丙疇, 『東慶語文論集』 제1집, 동국대, 1984.
- 이종목, 「李安訥의 현실주의적 詩精神과 紀實의 시세계」,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 정 민, 「權譚과 李安訥 對比的 考察」, 『韓國學論集』 제10집, 漢陽大 韓國學研究所, 1986.

Abstract

*A Study on Lee, Ahn-nul's poem <Jeungyugokyeokri> / Kim Chang Ho**

This study purposed to examine the background and thematic characteristics of Lee Ahn-nul's poem Jeungyugokyeokri(贈幽谷驛吏). Through this study, we attempted to review an aspect of the tradition of Chinese poems during the early and mid Chosun Dynasty and to suggest a viewpoint to prospect the thematic and stylistic characteristics of Lee Ahn-nul's poems, which represent the mid Chosun Dynasty. Jeungyugokyeokri is not an optimal poem for explaining the ultimate thematic and aesthetic level of Lee Ahn-nul's poems. However, this work reveal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his poetic spirit and contents, and the characteristics can be summed up into the record of facts and the consciousness of family. Essays on poetry and anthologies mentioned Sawolsipoil(四月十五日), Munga(聞歌), etc. as Lee Ahn-nul's poems representing Mogreungseongse(穆陵盛世 – the flourishing days of literature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jo. – Previous research also tried to evaluate his literary achievements based on these works. It is quite important to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a writer and his works through analyzing the writer's finest works and to set the thematic and aesthetic position distinguished from other poems written in the same period. However, this process should be performed through efforts to identify the writer's most typical work and the work's attributes guaranteeing the typicality. Only then, the history of Chinese poems may secure a substantial area of the history of thought comprehending the life and spirit of historical beings. In this sense, Jeungyugokyeokri shows an important ground for explaining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Lee Ahn-nul's poems and plays the role of a stepping stone for

* Professor of Wonkwang Univ. / nihult@hanmail.net

evaluating the thematic and aesthetic achievements of his poems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Key words】 the record of facts, the consciousness of family, the tradition of Chinese poems during the early and mid Chosun Dynasty, Poetic device

투고일 : 5월 6일, 심사일 : 5월 18일, 게재확정일 : 6월 4일